

500만원이 가지는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어를 매개로 한 중국 학생의 한국 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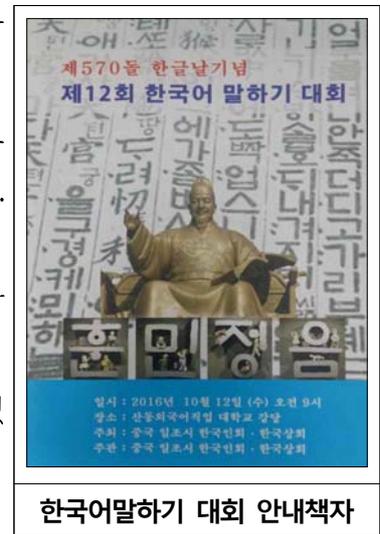
충청남도 당진시의 「일조시에서의 한국어말하기 대회」 사례

I. 들어가는 말

1. 중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 많이들 보시죠?”로 유창하게 말하는 ‘류향설’은 중국 산둥이공대학교 학생이다. 그는 마지막 말로 처음보다 덜 유창하지만 “많은 매력을 지닌 한국 사극,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하고 단상을 내려간다.

2016년 10월 12일 중국의 산둥성 르자오시 산둥외국어직업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매력 만점의 한국 사극’이란 주제로 1등을 차지한 연사의 연설이다. 생소하겠지만 중국에서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 충청남도 당진시가 지원하는 말하기 대회다.



당진시는 매년 중국 르자오시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2005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해 2016년 12회 대회를 마쳤다. 올 10월에는 제13회 대회가 열린다. 르자오시에서의 말하기 대회는 당진시가 중국의 르자오시와 우호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됐다.

2. 중국에 한글을 알린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인 한글을 중국사회에 알리고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키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한글날을 전후해서 열린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공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중국의 문화권 간의 교감과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된다. 젊은이들 사이에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특히 한·중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하에서 향후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미래의 주역들인 중국 대학생들이 펼치는 한국

어 말하기 대회는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이다.

2016년 주청다오총영사관 이수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미래 한·중 교류 인재 양성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12회째를 맞이하여 산동지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중국 학생들에게 자신이 갖고 닦은 한국어 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을 제공하는 한편,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은 물론, 나아가 한·중 양국의 우의를 증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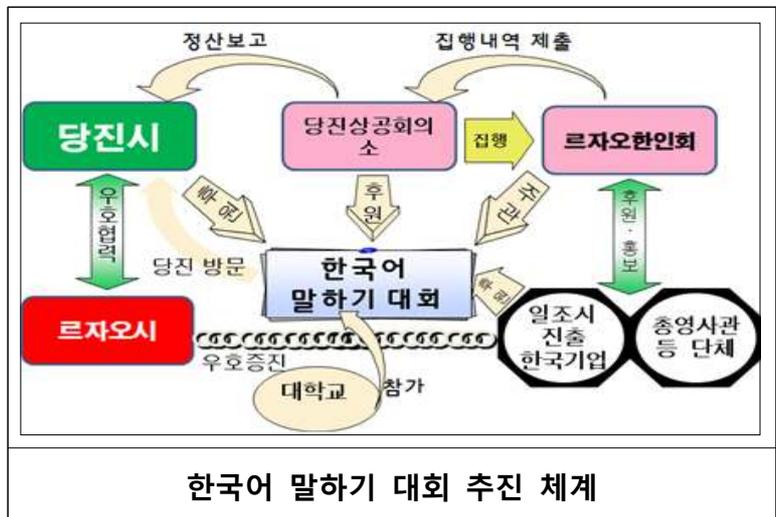
지난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해 2017년 당진을 방문한 ‘유상우’는 “한국어를 전공했으나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부간의 관계는 정부끼리 해야 할 문제이고, 학생들이나 지방은 나름대로 신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5위를 차지했던 ‘왕여훈’ 역시 “한국어 공부하는 건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준비를 통해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며, “그 결과가 좋아 당진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중국 내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나아가 양국의 우호증진과 학술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II.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요

1. 당진시가 지원해 시작

중국 일조시에서의 말하기 대회는 2005년 당진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당진시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보조금을 당진시상공회의소에 교부하고, 당진시상공회의소는 르자오시 한국인회·한국상회와 협력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 르자오시 한국인회·한국상회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주최·주관한다. 이 과정에서 주청다오총영사관이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재외공포재단 등의 단체 후원과 르자오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등의 후원으로 실시된다. 2016년에는 모두 58개의 후원 단체나 기업이 생기는 등 점차 후원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르자오시에서도 행사 장소나 행사 참여인원 등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대회 시에 당진시의회, 당진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등 긴밀한 관계유지를 하고 있다.

입상자는 대회 다음 해에 당진 방문 특전이 주어지는데 매년 5~6명이 당진을 방문하고 있다.

CNI 세미나 2017-080
제20회 충청중국어포럼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충원포 (충남연구원 미래연구원)

일시 : 2017. 4. 25(화), 10:00-13:00
장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우수사례
(발표 후원표 미래연구팀장)**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03 충남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03 민간교류의 대표적 사례① 당진시-르자오시

◆ 당진시와 산동성 르자오(日照)시의 교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매개로 함

- 당진시는 당진시상공회의소, 르자오시한인회와 협력하여 르자오시에서 매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
- 이로 인해 당진시 상공회의소는 대외교류, 르자오시 한인회 및 르자오시 한국기업은 르자오시와 우호적 관계 증대
- 당진시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교류를 수행하며, 민간 교류도 촉진

당진시청

보조금 지급

행사 장차

당진시 상공회의소

한국 연수

보조금 지급

자매결연 관계(2007)

르자오시 한국어 말하기대회(2008~)

행사 주최

르자오시 한인회

르자오시청

후원

산동성 소재 대학
교 등 교육기관

르자오시 한국기업

출처 : 중국산동대학한국학원, <http://www.korean.wh.sdu.edu.cn/07/16/16itemexw.htm>
16/26

- 14 -

한국어말하기대회 우수사례 발표 내용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사의 연설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로 자유롭게 주어진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정치적인 내용이나, 종교적인 내용은 제한을 받는다. 점수분포는 원고의 주제, 내용 30점, 발표 능력 50점, 즉석 질문 20점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2016년 대회부터는 즉석 질문 점수를 10점으로 줄이고 청중의 관심도 점수를 10점을 추가하면서 각 대학교에서 참여하는 500여명의 응원단의 열띤 환호 속에서 진행된다.

심사규정은 심사위원 6인의 점수 중 최고와 최저로 평가한 2인의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4인의 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동일 점수의 경우에는 저 학년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같은 학년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하게 된다.

대회는 30여명의 참가자로 인해 보통 오후 늦게까지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지루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연 중간 중간에 K-pop 공연, 한국 문화 공연 등을 실시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30명 참가, 500여명의 관중이 모여

매 대회마다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대부분 각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가한다. 한국 유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300여 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참가 하는 학생은 매회 30명 내외다. 대학교에서 참가하다 보니 응원단도 상당히 많은 수가 참석해 500여 명의 관중이 모여 참가자들을 응원한다. 응원 과정에서도 한국어에 관심이 뜨거워 관중석에서도 한국어가 많이 들린다.

지난 해 대회는 총 20개 대학교에서 29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2015년에는 24명이 참가했으며, 2014년에는 30명의 연사가 한국어 솜씨를 겨뤘다.



한국어말하기대회 참가자 기념 촬영(2016년)

3. 점차 한국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로 변화

대회는 한국 홍보 동영상 상영 후 국민의례, 심사위원 소개 및 규정 안내, 말하기 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가 많다보니 보통 하루 종일 실시되는 데 중간 중간에 한국관련 공연을 실시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경연은 연사의 발표가 끝나면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된다. 순전한 연습으로 발표만 잘하는 것인지, 한국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꼼꼼하게 점수로 매겨진다.

중요한 변화는 대회가 거듭하면서 연사들의 발표 내용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초창기에는 개인적인 이야기였으나 점차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 또 사회생활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등 사회적인 이야기로 변했다. 최근에

는 한국과 관련된 추억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다가 지금은 한국문화와 관련한 이야기로 변화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중국의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회의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29건 중에서 13건이 한국 문화와 관련 되어 있으며, 특히 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고 배운다, 동경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대회 1등은 한국의 사극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는 ‘매력만점 한국 사극’이 차지했다. 또, 2등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말하기 두려움에서 탈출해 한국어에 열정을 가지게 됐다는 ‘나의 한국어 병어리 탈출기’, 3등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전한 ‘한국이 나에게 준 추억’이 차지했다.

실제로 「매력만점의 한국 사극」의 원고를 살펴 보면 대부분 고대 용어로 대한민국의 학생들도 사용하기 힘들고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로 잘 소화 해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연사는 산둥이공대학교 3학년 ‘류향설’이다.

「안녕하시습니까? 오늘 소녀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 사극’이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 많이들 보시죠? 주로 어떤 드라마를 많이 보십니까? 아마 얼마전 한국과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태양의 후예’나 요즘 핫(hot)한 ‘더블유(W)-두 개의 세계’ 같은 현대극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극은 어떠신가요? 저는 유독 사극에 푹 빠져 있습니다. 사극 중의 아름다운 의상이나 독특하고 재미있는 사극 말투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복은 체형상 단점을 가릴 수 있으면서도 여자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처럼 키가 별로 크지 않고 통통

한 사람이 입으니까 키가 커 보이면서도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고리부터 치마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이 단정하고 정숙해 보입니다. 다양한 머리 장신구까지 하니, 정말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한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그 외에 말투와 용어도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리 오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어허, 어명이다.” 등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나 “그동안 강령하셨습니다습니까?”,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같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말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



연설 중인 연사(2016년)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많이 듣다보니 점점 이해할 수 있었고 따라해보니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현대의 말투와 너무 다르지만,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예의를 지켜서 엄숙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 말하거나 행동 할 때 저도 신중하게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사극은 ‘옥중화’와 ‘구르미 그린 달빛’입니다. 저는 사극을 통해 한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저에게 있어서 사극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만 할 줄 알지 한국의 역사나 예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는 빼 놓을 수 없는 기본이기 때문에 무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매력을 지닌 한국 사극,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매력에 한 번 빠져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 한국의 사극을 보면서 한국문화를 익히고 한국의 아름다움에 빠졌다.”고 말하는 연사. “한국어만 할 줄 알지 한국의 역사나 예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역설하는 연사에게서 감명 받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었다.

4.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모두가 수상자

대회 시상은 1등이 세종대왕상, 2등은 주칭다오총영사관상, 3등은 일조시한인회장상, 4등은 당진시장상, 5등은 당진시의회의장상, 6등은 당진상공회장상이 주어진다. 7등부터는 재중국한인회장상이나 후원 기업에서 주는 특별상과 장려상이 주어지게 된다.



한국어말하기대회 수상자와 함께

대회에 참가한 연사들은 말하기의 유창함이 나, 원고 내용 등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우열을 가리기는 사실상 힘들었다는 게 참석한 심사위원들의 소감이다. 원고의 내용도 한국어에 대한 맞춤법이다. 논리 정연한 전개 등이 한국 학생들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회에 입상하고 다음 해 당진을 방문한 학생들은 통역 없이도 자유롭게 한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다. 언어의 유창성에서도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 학생이라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

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매년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정기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해 온 것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국의 산둥대학한국어학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말하기 대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10월 9일 르자오시한국인회와 한국상회가 주관한 569주년 한글날 기념 한국어말하기 대회가 산둥성의 전 대학교에서 24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여한 점전 끝에 산둥대학교한국학원의 천저양(陳澤陽) 학생이 1위인 세종대왕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 「천저양은 연설과 질의응답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한국어말하기 대회에 관해서는 「한글날을 기념해 매년 한 차례씩 열려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수상을 한 학생들은 일주일 간 한국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전했다.



중국산둥대학한국학원
홈페이지 캡처
<http://www.korean.wh.sdu.edu.cn/kr/16/1elmexew.htm>

Ⅲ. 당진에서 소중한 경험을 간직해요

르자오시에서의 한국어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당진을 방문한 학생은 지금까지 총 40명에 이른다. 이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진을 방문한 학생은 모두 13명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5명씩 방문했으나 2016년에는 학생 3명이 당진을 방문했다. 2016년에 방문인원이 줄어든 것은 중국 정부와 한국정부 간의 문제에 기인 한 것이다. 방문 계획이 확정된 후 ‘사드 문제’가 양국 간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양국 간의 분위기가 격양된 탓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진을 방문한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드 문제’로 인해 느끼는 위험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적인 외교 문제와 국민들 간의 관계 등 민간 부문과의 관



도자기 만들기 체험하는 방문단(2016년)

계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에 와보니 실제로 중국에서 듣던 대로 위험한 것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당진을 방문 하면 당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현장 체험으로 진행된다. 당진상공회의소와 르자오시상공회가 연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방문 하는 곳은 당진시상공회다. 상공회를 방문하여 당진시의 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당진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

또 당진시의 주요 관광지나 유적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대한민국을 여행했다 하더라도 당진을 방문할 기회가 없는 중국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현장 밀착형으로 당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당진에서는 주요 관광지인 왜목마을, 최근 폐교를 예술촌으로 부활시킨 아미미술관, 대한민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피성지, 최근 SNS 등을 통해 핫하게 떠오르는 카페에서 야경을 보면서 당진 방문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 일정은 대개 체험코스로 진행된다. 사회적기업인 올미마을이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는데, 2016년에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했다. 직접 도자기 공방을 방문해 도자기 만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빚어 보면서 한국 도자기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체험한다. 만든 도자기는 구워서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당진을 방문한 기념품이 된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중국의 학생들은 처음 보는 작업, 처음 해보는 체험이라며 신기해했고, 멋진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또 작가가 설명하는 한국의 옛 도자기의 우수성이나 유명한 국보급 도자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멋과 장인 정신을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진을 둘러본 학생들의 소감은 서울이나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었지만 당진이라는 생소한 지방 도시를 방문하면서 당진이 얼마만큼 발전해 왔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유명한 도자기 작가에게 직접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만든 도자기를 가져갈 수 있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청 방문(2015년)
(김홍장 시장과의 대화 후 기념 촬영)

IV. 500만원으로 15억 중국인들의 관심 불러

르자오시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5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 지원을 통해 당진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중국에 소개할 수 있는 틈새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틈새 상품으로도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높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 당진을 방문한 입상자들을 통해 당진을 알리고 당진과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중국의 청소년들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에 우호적인 측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당진시와 자매도시인 르자오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외교에 못지않게 지방정부

간의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르자오시에 진출한 대한민국의 기업 활동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민간 교류는 물론 상공업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르자오시에서의 한국어말하기 대회에 국내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 당진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당진시와 르자오시와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진시는 앞으로 당진에서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는 것을 르자오시와 함께 검토하는 등 양 도시 간의 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금강일보 2015년 10월 12일 (월) 15면 지역

정병희 당진시 부시장, 中 한국어말하기대회 시상

일조시 방문 ... 교류증진도 논의

정병희 당진시 부시장 행차가 중국 일조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569동 한글날 기념 한국어 말하기대회 시상 및 우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조시를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제중국 일조시 한국인회·한국상회 회장 고승욱 주관으로 일조시농외국어 대학 대강당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지체결연 도시 대표자격으로 시상식을 위해 참석하게 됐다.

이날 대회는 상동성, 장수성 지역 각 대학별로 1차 선별된 30명의 3-5분간 한국어 말하기 대회로 진행됐으며, 입상자 상위 5명에게는 일조시에 진출한 한국 부자기업에 진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이날 행사 이후 부시장 일행은 유성태 일조시장과 회담을 갖고 양 도시 간의 민간분야 활성화에 대해 협의했으며, 당진시 3농 혁신을

일조시 방문... 교류증진도 논의

정병희 당진시 부시장이 중국 일조시에서 개최된 제11회 569동 한글날 기념 한국어 말하기대회에서 일조시에게 상을 전달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매우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일조시 농업 대표단을 당진시에 파견기로 상호 합의했다. 한편, 당진시와 일조시는 지난 2003년 우호친선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2007년 지체결연 한 이후 현재까지 양 지자체 간 공무원 교환근무와 민간단체 방문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당진=조병길 기자 bjo@jinlab.com 14.1 X 11.1 cm

금강일보 보도(2015. 10. 12.)

중앙매일 2016년 04월 22일 (금) 08면 지역

“당진의 매력에 퐁당 빠지다”

中 일조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 당진시방문



사진은 中 일조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 당진시 방문 장면.

중국 일조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들이 지난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당진시를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단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한글날 기념 제10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들로, 수상으로 한국 방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일조시 한인상회의 김규원 기업홍보 위원장을 비롯해 당진시장상을 수상한 왕교 씨 등 수상자 8명은 20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당진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특히 방문 이틀째인 21일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의장을 결연한 뒤 신성대 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당진시에 최대 관광자원인 삼포호를 방문한 일행들은 합성공원 등을 둘러보고 바다와 호수를 테마로 한 차별화된 관광자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당진의 3농혁신을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산테마파크와 연구시설, 종자은행 등을 둘러보고 농업도시로서의 당진의 위상을 체감하면서 한국산 농산물이 중국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김택양 학생은 “당진이라는 지방이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해 왔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면서 “일조시에서 유명한 도시인들 많지만 농산물 해양관광 산업도 무척 발전했다는 것을 이번엔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와 일조시는 지난 2003년 우호친선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07년 지체결연한 이후 현재까지 양 지자체 간 공무원 교환근무와 민간단체 방문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김홍장 시장이 일조시를 방문해 유성태 일조시장과 만나 교류 활성화에 협의한 바 있다.

당진 / 김병길 기자 16.1 X 17.1 cm

중앙매일 보도(2016. 4. 22.)